

## 4 뭐든지 함께

지환 씨는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지환 씨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싼 값에 제공했기 때문에 단골이 많았다. 또한 식당에 온 손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어느 날, 지환 씨가 처음 보는 노부부가 식당에 들어왔다. 노부부는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할아버지는 지환 씨를 불러서 김치 볶음밥을 주문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지환 씨는 음식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볶음밥을 반으로 갈랐다. 그리고 지환 씨에게 앞접시를 하나 달라고 한 후에 볶음밥 절반을 접시에 덜었다. 그리고 그 접시를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수저를 들지 않고 가만히 할아버지를 보고만 있었다.

지환 씨는 노부부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볶음밥 2인분을 시킬 돈이 없어서 반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환 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볶음밥 1인분을 서빙으로 드려도 되겠냐고 했다.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린 그냥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함께해요. 뭐든지.” 그러고는 다시 볶음밥을 계속 먹었다.

지환 씨는 웃으면서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틈틈이 노부부를 보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환 씨는 자기 몫의 볶음밥을 할아버지에게 주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지환 씨는 다시 노부부 자리에 갔다. 할머니는 지환 씨를 보고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냥 함께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지환 씨가 말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할머니 볶음밥은 안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했다. “아, 남편이 먼저 틀니를 쓰기로 했거든요. 다음에는 제 차례지요.”

### 단어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자주 가는 \_\_\_\_\_ 가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 ① 손님                      ② 단골                      ③ 부부                      ④ 남편

2. 음식이 너무 많으면 좀 \_\_\_\_\_ 어서/아서/여서 먹어요.

- ① 덜다                      ② 놓다                      ③ 가르다                      ④ 함께하다

3. 회사에 다니면서 \_\_\_\_\_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 ① 여전히                      ② 나란히                      ③ 가만히                      ④ 틈틈이

## 내용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왜 할머니는 볶음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 ① 식당 서비스가 나빠서
  - ② 할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 ③ 볶음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 ④ 할아버지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어서
2. 지환 씨는 노부부를 보고 \_\_\_\_\_ 생각했다.
  - ① 이상하다고
  - ② 존경스럽다고
  - ③ 도와드려야겠다고
  - ④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3. 할아버지는 \_\_\_\_\_ 볶음밥을 1인분만 주문했다.
  - ① 돈이 없어서
  - ② 이미 배가 불러서
  - ③ 얼른 먹고 나가려고
  - ④ 할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4.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_\_\_\_\_을/를 함께 사용한다.
  - ① 틀니
  - ② 접시
  - ③ 수저
  - ④ 의자
5.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지환 씨는 전에 노부부를 본 적이 있다.
  - ② 할머니는 지환 씨에게 볶음밥을 주문했다.
  - ③ 지환 씨는 서비스로 볶음밥 1인분을 더 드렸다.
  - ④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친 후에 식사를 시작할 것이다.

##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나누다

몫

차례

주문하다

어느 날 지환 씨의 식당에 노부부가 들어왔다. 그런데 부부는 김치 볶음밥을 1인분만 \_\_\_\_\_고  
는 그것을 반으로 \_\_\_\_\_었다/았다/였다. 그런데 그 볶음밥 절반을 할아버지만 먹고 할머니는  
자기 \_\_\_\_\_을/를 안 먹는 것이었다. 지환 씨는 할머니에게 볶음밥을 안 먹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할 \_\_\_\_\_을/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

## 답

### 단어 연습

1.㉔ 2.㉑ 3.㉔

### 내용 이해

1.㉔ 2.㉓ 3.㉔ 4.㉑ 5.㉔

### 요약

주문하고는, 나뉘다, 몫을, 차례를